ETH Zurich 교환학생 활동보고서

전기정보공학부 김지예

2019년 봄학기에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학(ETH Zurich)로 파견되었던 전기정보공학부 김지예입니다. 다른 분들이 생활 등의 면에 대해 자세히 후기를 쓰셔서 저는 수업 위주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1. 수업

우선 저는 개강 2주 전에 미리 와서 독일어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transcript of record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2ECT로 인정은 해주며 따로 성적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A1.1반으로 아예 기초를 배웠는데 기초 독일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스위스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 같고, 독일어 뿐만 아니라 스위스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ETH에서 확실히 양질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과 조교님들이 열정적이시고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항상 받으려고 하시고, 학생마다 과별 전담 코디네이터가 수강 수업에 관해 상담도 해줍니다. 저는 수업은 총 4가지 수업을 신청했는데, Big data for engineers, Neural systems, Computer simulation of sensory system, Game Theory and control을 신청해 수강하다가 Computer simulation of sensory system의 경우 수업 로드에 비해 ECT가 너무 작아 신청을 취소했습니다만 성실히 수강하고 과제를 열심히 하면 배우는 게 많을 수업일 것 같습니다. Neural systems도 마찬가지로 전기정보공학부에서는 수강할 수 없는 교과목을 자세히 여러 분야에서 깊이 배울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다만 이걸 작성하는 시점에서 모두 아직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Pass하기가 쉬운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시험은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만 풀수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Big data for engineers는 for engineers과목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고 내용도 따라가기 적당한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강의 recording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복습도 편리했고 배운게 많은 과목이었습니다. Game theory and control은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하였는데 강의와 tutorial모두 강의력

이 좋으시고 알찬 과목이었습니다. ETH에서 영어과목을 수강하려면 고학년 수업 또는 석사 수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학년 분들보다는 고학년 분들이 오시기에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수강한 수업들은 모두 session exam으로 8월에 시험을 보는 과목들이라서, 수업은 5월 중순에 끝나는데 시험이 8월이라 귀국도 못하고 맘편히 여행다니지도 못하는 점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정보공학부는 거의 session exam이긴 하지만 왠만하면 end of semester exam을 추천드립니다.

2. 생활

스위스(특히 취리히)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요리를 많이 해먹었고, 육류,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인근 독일 지역인 Konstanz로 넘어가서 장을 봐오고는 했습니다. 한식당도 거의 없을 뿐더러 있어도 비싸고, 한인마트 유미하나도 가격이 꽤 되기 때문에 한식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택배를 받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권은 Halbtax와 Gleis 7을 구매하고 취리히 내에서는 매달 monthly pass를 구매해 이동했는데, Gleis 7이 지금까지는 7시 이후 모든 기차 무료지만 이번에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Casar-ritz strasse 1에 살았는데, 시설은 확실히 다른 기숙사들에 비해 낫지만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고, 시내나 학교에서 너무 멀어서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WOKO에 기숙사를 신청할 때 요청사항에 요청사항을 쓰면 잘 반영해주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중앙역에서 가깝게 해달라거나 키친은 몇 명 이하가 쉐어했으면 좋겠다거나 하는 걸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H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피험자로 참여하면 시간당 20~30프랑정도의 금액을 벌 수 있는데요, 앞서 ETH 후기들 중에 해당 링크를 써주신 분이 계시니 그 링크에서 register해서 실험에 참가하시면 약간은 재정에 보탬이 되실 것 같습니다.

SBB(교통 앱), Meteoswiss(날씨 앱)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고, 유심의 경우에는 salt와 lycamobile을 쓰다가 결국 EE로 바꾸었는데 EE가 이제 영국이 아니면 개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가 유럽 내 중심에 있다 보니 다른 나라로 여행다니기가 정말 편리했는데요, 특히 파리는 기차

타고 3시간만 가면 되고, 독일이나 체코 등도 여행가기 편리해서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행 다닐 때 가장 유용했던 어플은 Revolut인데요, 환전어플인데 수수료 없이 유럽 내 통화를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고 카드도 발급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 돈 송금도 굉장히 편리해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스위스 거주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느낀 점

스위스가 물가가 비싸고 대도시가 아니라 재미없긴 하지만 사람들이 여유가 넘치고 치안도 좋고 깨끗하고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서 살기에는 최고의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문 대학 ETH답게 학생들에 대한 지원,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있어서 다니면서 만족했고 부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분께 ETH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 공과대학 대외협력실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